

# 開化期 關西地方과 改新教

—改新教 受容의 一事例—

李 光 麟\*

## I

改新教가 韓國 社會에 처음 受容될 때 信者들은 어떤 社會 階層에 속해 있었으며, 또 그들은 改新教를 받아들임으로서 무엇을 얻었으며 당시 社會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 이러한 質問은 韓國改新教史 연구에 있어서 밝혀져야 할 중요한 문제로 되어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제까지의 연구가 지나치게 宣敎(mission work)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에 대한 하나의 反省에서 提起되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실은 이와 같은 社會的 性格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개신교의 受容과 發展을 옳게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關西地方의 改新教를 事例로 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외래종교인 개신교를 수용할 때에 지방마다 특색이 있었을 것이므로 그 특색의 하나를 살펴 보려는데 지나지 않는다. 勿論 개신교를 받아 들임에 있어 關西地方은 다른 지방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적극적이었고 또 단시일 내에 刮目할만한 발전을 이룩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도시 東洋 삼국 중에서 개신교를 받아 들임에 있어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적극적이었다. 中國에 改新教 信者가 생긴 것은 宣敎師가 來到한지 8년 뒤였다. 즉, 영국 선교사 모리슨(Robert Morrison)이 1807년에 廣東에 도착한 뒤에 1814년 마카오에 있는 중국 사람에게 세례를 줌으로서 信者가 생겼던 것이고, 또 일본에서도 선교사가 來到한지 5년 뒤에, 즉 1859년 미국의 선교사 리긴즈(J. Liggins)가 들어온 뒤 1864년에 이르러 부라운(S.R. Brown)과 발라(J. H. Ballah)의 日本語 선생이었던 사람이 세례를 받아 信者가 생겼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신자가 있었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알렌(Horace N. Allen)으로 그는 1884년 9월에 이 땅에 들어왔던 것이다. 다음해인 1885년 4월에

\* 西江大教授

長老教會의 언더우드(H. G. Underwood) 목사가 들어왔고, 또 그해 5월에는 監理教會의 아펜셀러(H.G. Appenzeller) 목사가 들어왔던 것이다.

이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장사하러 滿洲에 갔던 義州청년 李應贊, 李成夏, 白俊, 金鎮基, 李益世 5名은 스코틀랜드의 장로회 목사 맥킨타이어(John McIntyre)를 만나 1876년에 한국에 들어오기 8년 전인 1876년에 세례를 받았고, 또 의주 청년 徐相崙도 1879년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목사 로스(John Ross)를 만나 세례를 받았던 것이다. 使節團의 일원으로 일본에 갔던 李樹廷도 1883년 4월 東京에서 세례를 받은바 있었다. 이처럼 외국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신자가 생겼던 것이다. 이것은 天主教 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외국 神父가 들어오기 전에 實學者들이 중국에서 드러온 서적을 읽고 신자가 되고, 자기들끼리 敎會를 세웠던 것이었다.

한편 선교사들이 入國한 뒤에는, 자발적으로 선교사 앞에 나타나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한 기독교 서적이 여러 루트를 통해 우리 나라에 들어왔고, 또 만주에서 맥킨타이어 목사와 로스 목사가 주관하여 번역한 한글판 성서도 앞서 만주에서 신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갖고 들어와 전하였던 것이므로 그것을 읽고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 例로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목사가 한국에 들어온지 2년 뒤인 1887년에 徐景祚 등 3인은 언더우드 목사를 직접 찾아가 세례를 받았다. 또 이들은 자기들이 전도했던 黃海道 長湍郡 松川으로 언더우드 牧師를 불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의 요청으로 언더우드 牧師는 1887년 11월에 제1차 關西地方 여행을 떠났다. 이 여행에서 그는 松川과 平壤, 義州 등지를 방문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 20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889년 봄 언더우드는 제2차 여행을 떠나 이번에는 義州에서만도 세례를 받기 원하는 100여명 중에서 敎理問答을 통하여 33명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전한다<sup>1)</sup>.

감리교의 아펜셀러 목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행을 하여 세례를 주었다. 또 선교사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에서는 자기들끼리 예배처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는 자발적으로 신자가 생겼고 어느 곳에서나 선교사의 訪問을 기다렸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당시의 실정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牧師는 福音의 씨를 뿌리러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즐거운 수확을 거두러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개신교를 받아 드림에 있어 가장 열렬하고 적극적이었던 곳은 관서 지방이었다. 1887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목사는 몇차례의 답사를 하고 본격적인 선교 사업을 벌인 것은 1892년 부터였다. 그러나 불과 몇년 내에 개신교는 대단한 세력을 가졌

(1) Lillias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Fleming H. Revell Company, New York, pp. 61~79.

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외국인들은 關西지방의 教會의 발전에 대해 경탄을 금하지 못하였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헐버트(H.B. Hulbert)의 아래와 같은 기술은 하나의 좋은 예라 할수 있다.

長老教 宣教會의 管轄下에 있는 韓國 北部地域은 世界에서 가장 成功한 宣教地域으로 널리 注目을 받고 있다. 그것은 단지 教會와 關聯을 갖고 있는 사람數가 많다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獨自의으로 教會를 運用하고 있다는 놀랄만한 結果 때문이다. (2)

즉, 그는 이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선교 지역이라고 격찬했던 것이다. 또 당시의 미국 장로교회 본부 총무였던 스피어(Robert E. Speer) 박사도

關西지방의 교회 발전은 世界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을만큼 擴大되었고, 교회당은 초만원을 이루고 있으며, 확장의 기회는 無制限이다. (3)

[表 1] 長老教會 設立 統計 [車載明編 朝鮮예수教長老會史記(上)에 依據]

年度	道	서울	咸北	咸南	平北	平南	黃海	京畿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1885		—	—	—	—	—	1	—	—	—	—	—	—	—
1887		1	—	—	—	—	—	—	—	—	—	—	—	—
1890		1	—	—	—	—	—	—	—	—	—	—	—	—
1891		—	—	—	—	1	—	—	—	—	—	—	—	—
1992		—	—	—	—	—	—	—	—	—	—	—	—	—
1893		—	—	1	—	4	14	—	—	—	—	—	—	1
1894		—	—	—	—	3	4	1	—	—	—	—	—	—
1895		—	—	—	1	4	11	1	—	—	—	—	—	1
1896		1	—	5	1	10	5	—	—	—	1	—	1	1
1897		—	—	—	4	14	10	—	—	—	1	—	—	2
1898		—	—	2	6	12	8	2	—	—	—	1	—	1
1899		—	—	2	4	15	1	—	—	—	—	1	—	—
1900		—	—	4	8	25	11	—	—	—	2	2	2	—
1901		—	3	1	10	9	7	3	2	—	2	1	10	5
1902		—	—	2	4	9	2	2	1	—	1	4	3	3
1903		—	3	5	3	10	6	2	1	—	5	5	3	1
1904		1	1	1	8	15	7	6	3	1	2	5	10	2
1905		1	—	—	29	19	3	4	2	1	8	14	26	9
1906		1	—	1	20	13	13	15	5	—	9	12	28	16
1907		1	—	—	—	—	—	5	5	—	—	—	—	—
1908		1	—	—	—	—	—	5	—	—	—	—	—	—
1909		1	—	—	—	—	—	6	2	—	—	—	—	—
1910		2	—	—	—	—	—	4	2	—	—	—	—	—
計		11	5	24	98	162	102	56	23	2	30	45	83	42

(2) The History of Korea, Seoul, Vol. II. 1905. pp. 325~326.

(3) 白樂濬, 韓國改新敎史, 1832—1910, 延世大學校 出版部, 1973, p. 285.

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관서 지방의 교회의 발전은 앞 페이지의 [表 1] 長老教會設立 統計를 보아도 立證될 수 있다<sup>(4)</sup>.

이 통계에서 보면 1885년부터 1910년까지의 교회 설립 수가 平北이 98, 平南이 162, 黃海道가 102개소로서 전체 교회 683개소 중에서 관서지방이 362개소로 과반수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이 지방 교회들의 설립은 대부분이 1897년에서 1905년 6월까지이다.

또 [表 2]의 舊韓國 學部에서 조사한 全國學校數를 보아도 같은 結論에 到達하게 된다.

[表 2]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官·公立學校 보다도 私立學校가 문제가 된다. 사립학교 중에서 각종과 종교란 중에서 종교 단체에서 세운 것이 75개교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극히 소수의 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기독교 단체에서 세운 학교들이었다.

[表 2] 學部에서 조사한 全國學校數(1910年 7月 1日 現在) [官報 第4756號  
隆熙 4年(1910) 8月 13日刊 彙報欄 所載]

種 別 府道別	官 公 立 學 校				計	准公立 普通 學校	私 立 學 校					計	合 計
	專 門	高 等	實 業	普 通			高 等	實 業	普 通	各 種	宗 教		
한 성 부	4	2(女)	3	9	18	1	1(女)	2	1	67	23	94	113
경 기 북	—	—	1	6	7	12	—	—	—	139	44	183	202
충 북 북	—	—	—	2	2	4	—	—	—	40	7	47	53
충 북 남	—	—	—	4	4	3	—	—	2	67	17	86	93
전 북 국	—	—	2	4	6	2	—	—	4	41	30	75	83
전 북 남	—	—	2	5	7	7	—	—	14	19	7	40	54
경 북 북	—	—	1	4	5	4	—	—	4	65	72	141	150
경 북 남	—	—	2	7	9	4	—	1	6	74	17	98	110
황 해 남	—	—	—	2	2	7	—	—	—	102	149	251	260
평 북 남	—	1	—	3	5	6	—	—	3	159	255	417	428
평 북 북	—	—	—	4	5	5	—	1	—	251	115	367	377
강 원 북	—	—	1	3	4	5	—	—	—	33	4	37	46
함 북 남	—	—	2	3	5	9	1	—	2	171	15	189	203
함 북 북	—	—	2	3	3	4	—	—	3	54	—	57	64
計	4	3	16	59	82	73	2	7	36	1,282	755	2,082	2,237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통계는 1910년 7월 1일 현재의 것으로서 統監府에서 1908년 8월에 「私立學校令」을 공포하여 學校財團의 不實, 敎員 資格의 不足 등을 들어 많은 사립학교를 폐지한 뒤에 작성된 것이다. 그 이전에는 [表 2] 보다 더 많은 학교가 있었을 것이다.

(4) 이 長老教會設立統計는 1928년 새문안 교회에서 車載明이 편찬한 <朝鮮예수敎長老會史記(上)>에 의거하여 필자가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 統計는 正確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특히 1907년부터 1910년까지 서울·京畿·忠北을 제외한 他地域에 敎會設立이 없다는 것은 이상하다. 그러나 全般的인 傾向만은 알 수 있으므로 여기서 제시한 것이다.

어쨌든 1910년의 통계만 보아도 관서지방에 사립 및 종교 계통의 학교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알 수 있다. 말할것도 없이 학교는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또 발전하였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서 세워졌던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앞에서 헐버트나 스피어 박사가 한국 개신교회의 발전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놀랄만한 성과」라고 한 것은 과히 틀린 말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 II

그러면 관서 지방은 어떻게 해서 개신교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이처럼 적극적이고 또 단시일 내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매우 興味있는 문제이지만 실제로는 史料의 빈곤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

초대 교회에 대한 社會調査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면 쉽게 理解될 수 있을 것이다. 說教集을 남긴 분들은 몇분 있지만 이러한 調査를 할 수 있는 資料나 回顧錄 하나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 물론 선교사들의 일부 報告書가 남아 있지만 이것은 많은 制限을 갖고 있다. 역시 西洋人들이 쓴것이라 우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자료가 없으니 그들의 것을 利用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의 보고와 기타의 자료를 參考로 하여 關西지방 教會의 社會的 性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까 한다.

이 地方에 대한 것으로는 베어드(William M. Baird, 韓國名, 裴緯良)의 보고서가 있다. 다 아다실이는 그는 崇實學堂의 설립자이다. 그는 1890년에 선교사로 한국에 왔고, 1891년부터는 부산에서 전도 사업에 종사하였다. 다음 해 즉 1892년에는 경상도 남해 일대를 답사한 바 있고, 1896년에는 잠시 서울에 滯留하다가 곧 평양으로 파송되었다. 그뒤 平安南·北道를 두루 답사하였다. 結局 그는 5년동안 남쪽을 直接 보았고, 또 북쪽 지방도 답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평양에 간 다음 해인 1897년 5월에 당시 徐載弼 박사가 경영하던 독립신문 英文版(The Independent)에 「북한 여행기」(Notes on a Trip into Northern Korea)를 투고하였다. 그는 여기서 南北韓을 비교하면서 여러가지 흥미있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一部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북쪽 地方 사람들은 南쪽 地方 사람보다 더 사람답게 보였다. 그 原因을 살펴보니가 所謂 兩班階級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存在하지 않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南쪽 地方에는 自立的인 中産層이

(5) The Independent, Vol. 2. No. 59, May 20, 1897. The Independent에는 Friar Martine이라는 이름으로 투고되어 있으나, Korean Repository나 기타 자료에 의하면 베어드 牧師의 글임이 확실하다.

威勢堂堂한 兩班과 허리를 굽히고 아침만 하는 農奴들 틈에서 어쩔 줄 몰라 짓눌리고 있기가 일수이다. 北쪽 地方은 自立的인 中産層이 우세하기 때문에 希望에 넘쳐있다. 自立的인 中産層은 自己들의 生計를 직접 꾸려나가야만 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肉體와 頭腦를 쓰고 있었다.

이 글 중에서 「북쪽지방(관서지방)에는 自立的인 中産層(Independent middle class)이 우세하기 때문에 희망에 넘쳐 있다」는 말은 우리들의 注目을 끌게한다.

여기서 그는 〈Independent middle class〉, 즉 자립적인 중산층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대체로 中小地主, 自作農 혹은 商人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중에서 商人을 중심으로 설명한다면 관서 지방은 일찍부터 중국과의 무역으로 상업이 발달하고 있었다. 중국에는 주로 人蔘을 수출하였다. 해마다 朝鮮 정부에서는 중국에 사절단들을 파견했고 이 사절단이 통과하는 주요 都會處에는 큰 市場이 생겼다. 이에 따라 富者도 많이 생겼다. 純祖 때 國際貿易商으로 중국에까지 그 이름을 크게 떨친 林尙沃은 義州 출신인데 인삼장사로 巨富가 된 사람이었다.

17세기 후반기부터는 營農 기술의 향상에 따른 生産高의 증대, 商業的 農業生産의 擴大, 金屬貨幣의 流通, 市場의 形成 등으로 국내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關西地方의 商人들은 松商(開城商人)들과 더불어 전국에 손을 뻗었다. 당시의 실정을 承政院日記 正祖 12年(1788年) 8月 18日 條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前參判) 李在學이 備邊司의 말로서 國王에게 아뢰기를 右通禮 禹禎圭가 疏陳한 冊子를 보니 (中略) 우리 나라의 關西地方은 土産物이 三南地方에 미치지 못합니다. 밭이 논보다 많고 商人이 農民보다 많고 사람들은 根本, 즉 農事에 힘쓰지 않고 末技, 즉 商業에 從事함을 좋아하는 形便입니다.

結局 18세기 후기, 즉 正祖年間에 이르러 관서지방에는 상업 종사자가 많아지고 상업도 발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실을 備邊司臚錄 第243冊 哲宗 7年(1856年) 3月 5日 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右議政 朴晦壽가 國王에게 아뢰기를 平安監司 金鼎集이 本司(備邊司)에 報告한 內容을 보니 涇江 周邊에 있는 十餘州 사람들은 商船을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기사는 涇江, 즉 大同江을 중심으로 하여 平安道와 黃海道 地方의 농산물 및 手工業品들의 운반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開港 후에는 어느 지방의 상인들 보다도 앞질러 근대적인 商會를 만들었다. 金允植의 陰晴史(下) 高宗 20年(1883年) 6月 條에서 이 事實을 發見하게 된다.

平安道 사람들이 처음으로 商會를 設置하고 그 이름을 大同商會라 하였다. 外衙門의 官吏들이 保護하고 있다. 서울의 中人들도 商會를 長通坊 瀋川司에 設置하고 그 이름을 長通商會라고 하였는데 이 商會는 內衙門의 官吏들이 保護하고 있다.

위의 기록은 平安道人들이 먼저 商會(會社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를 만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상업의 발달에 대해서는 장로교회의 의료 선교사였던 웰즈(Hunter Wells)의 平壤市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平壤市는 旅行者들에게 古代의 榮光이나 威嚴을 別로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不遠 商業이 全國을 支配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平壤市가 다시 이 나라의 首都가 된다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몇달전에 서울의 名望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말한 바 있다.

한편 앞에서 引用한 베어드 목사의 「북한 여행기」를 보면, 「北韓에는 兩班(Gentleman class)이라고 부르는 階級이 存在하지 않음을 보았다」고 있다. 關西地方에 兩班階級이 없다는 그의 지적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大抵 우리 나라의 兩班에 대한 연구는 잘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양반이라면 門閥과 벼슬[官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사회계급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문벌도 좋아야 하지만 벼슬을 하지 않고는 양반이 될 수 없었다. 當代에 벼슬을 하지 못한다해도 三代內에는 政界에 나아가 벼슬을 해야했다. 선비라던가 士大夫란 말은 양반에 포함될 수 있었다. 벼슬을 하게 되면 士大夫가 되고, 못하면 선비가 되는 것이다.

兩班—선비나 士大夫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고 古典에 精通하며 글을 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합격하고 벼슬을 해야한다. 벼슬을 못하면 양반이 될 수 없었다. 지방의 土班이 될 수 있을지언정 양반이 될 수는 없다. 벼슬을 하려면 과거에 합격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합격하면 누구나가 다 벼슬을 할 수는 없었다. 中央政界에 있는 누군가가 추천해주고 밀어줘야만 벼슬을 할 수 있었다. 平安道 사람들은 바로 이경우에 해당되었던 것이다.

미국 하버드 大學의 와그너(Edward Wagner) 교수는 10여년 전부터 朝鮮時代의 科擧合格者 名簿인 「榜目」을 컴퓨터로 調査, 研究하고 있다. 榜目에는 父系, 母系, 妻家の 四代에 걸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사회이동(Social mobility)에 대한 研究가 可能하다.

6.7년전에 와그너 교수는 연구의 중간 발표를 한 바 있는데, 이에 의하면 朝鮮時代의 과거 합격자 14,000명 중에서 西北地方 출신은 1,350명이며, 이중 平安道人이 80%, 함경道人이 20%로 되어 있다고 한다. 1,350중 80%이면 대체로 평안도出身 合格者는 1,000명 가까운 숫자가 된다. 이것은 당시의 여건으로 보아 결코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없었다. 더욱 놀랄만한 것은 선비가 많다고 자랑하는 慶尙道보다도 平安道 出身 科擧合格者가 더 많았다는 사실이다.<sup>(7)</sup>

이처럼 平安道人들은 많은 숫자가 과거에 합격하고도 中央政界에서 추천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벼슬을 할 수 없었고, 따라서 양반이 될 수 없었다. 특히 朝鮮 後期の 勢道政治

(6) Korean Repository, Vol. 4, February 1897.

(7) Ladder of success in Yi Dynasty Korea, read at the 19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held in Chicago, March 20—22, 1967.

下에서는 登用되어 벼슬을 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에 가까웠다. 門閥로 全州李氏, 安東金氏, 豊壤趙氏, 그리고 地域적으로 서울 사람, 京畿道사람, 忠淸道 사람들이 벼슬을 독점했기 때문에 벼슬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벼슬을 하지 못했다 해도 科擧에 합격했다는 事實은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結局 讀書階級—선비가 평안도에는 그래도 많았다고 볼 수 있었다. 그들은 上京하지는 못하고 지방인 자기 고장에서 書院이나 書堂을 차리고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것을 樂으로 삼아야했다. 그들의 지도와 교육으로 관서 지방에는 文盲이 매우 적었다. 文盲者가 적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다. 文盲이 적었기 때문에 새로운 文化를 받아들일 때 速度가 빠르고 또 效果가 컸던 것이다.

미국 컬럼비아大學의 파신(Herbert Passin) 교수는 일본이 明治維新以後 近代化를 것처럼 빨리 이룰 수 있었던 것은 德川幕府時代에 寺子屋라는 書堂이 많이 세워져 教育이 普及되어 結局 文盲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說明하고 있다.<sup>(8)</sup> 따라서 日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서 지방에 文盲이 적었다는 것은 새로운 文化를 받아들이는데 크게 寄與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과거에 합격하고도 벼슬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중앙정부나 집권층에 대해 불만이 쌓이고 또 비관적이 됨은 어쩔 수 없었다. 純祖 11년(1811) 洪景來의 亂이 일어났을 때 일부 선비들이 가담했던 事實은 그러한 中央政府에 대한 批判的인 姿勢와 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 當時의 平安監司 자리는 아주 좋은 자리로 看做되어 있었다. 이것은 監司나 地方官이 착취 행위를 마구해도 이를 批判하고 牽制할 兩班勢力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關西 사람들은 身分적으로 隸屬을 받고 또 經濟적으로 抑壓을 받게 되자 兩班政治體制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게 되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이 중에서 자립적인 중산층은 하나의 第三階級이라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政治思想, 새로운 倫理를 要求하고 있었으므로 막연하게나마 傳統的인 李朝 兩班社會에 대한 하나의 修正 乃至 變革을 꿈꾸게 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洪景來亂이 일어났을 때 일부 선비와 함께 상인들도 가담하였던 것이다.

### III

改新敎를 받아들인 社會階層이 바로 이 自立的이고 獨立心이 강한 中產層이었다. 이 階層중, 小地主나 自作農에 대한 資料는 적으나 商人에 대한 資料는 많다.

(8) Society and Education in Japa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965.

선교사가 이땅에 들어오기 전에 滿洲에서 信者가 된 李應贊 등 義洲 청년들은 人蔘을 팔러갔던 상인들이었다. 또 일본에서 信者가 된 李樹廷도 人蔘을 팔던 상인이었음이 최근 일본측 자료에서 밝혀졌다<sup>(9)</sup>. 1907년 제1회 장로회 신학교 졸업생 7명 중의 한 사람인 유명한 韓錫晉 목사도 원래는 人蔘, 糯粟 장사를 하기 위해 만주를 왕래하였던 상인이었다. 獨立運動의 指導者 李昇薰 先生도 鑛器 生産地로 有明한 定州 納清의 상인이었고, 曹晩植 先生도 平壤 鐘路에서 布木商을 경영했었던 商人이었음은 널리 알려져있는 사실이다.

이처럼 改新教가 關西地方에서 保守層, 官僚層이 아닌, 近代化의 傾向을 強하게 지녔던 自立的 中産層에 依해 受容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意義를 갖는다. 이것이 改新教를 적극적으로 받아드리고 단시일 내에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한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이 자립적인 中産층은 基督教을 믿음으로서 나라의 모든 矛盾을 제거하고 開化를 이룩하게 될 것으로 確心하고 있었다. 기독교를 先進文明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여 문화적인 것과 함께 받아들였던 것이다. 기독교를 믿으면 개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믿은 例는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獨立協會 會員들이 刊行하였던 매일신문의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지금은 대한에도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동포가 만히 있스니 믿는 형제즈미를 더하여서는 우리가 그 교를 가지고 더말치아니 하여도 아시는 비어니와 우리가 특별히 믿지 않는 동포들을 위하여 예수교가 나라문명 부강과 동립즈주의 근본이 되노줄을 제뎃게 호노라.<sup>(10)</sup>

그들은 한국의 개화와 기독교 신앙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西歐 열강이 저처럼 부강하고 문명 개화를 이룩한 것은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이니 우리도 그렇게 되려면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한편 1890년대 후반기부터 進化論이 우리 社會에 크게 影響을 주고 있었다. 중국에서 嚴復이라는 先覺者가 헉슬리(T. Huxly)의 進化와 倫理(Evolution & Ethics and Other Essays)라는 책을 <天演論>이라는 이름으로 번역하였다. 이 책도 직접 우리 나라에 들어왔지만 進化論을 흡수한 梁啓超의 글이 우리 나라 知識人들에게 크게 影響을 주었다. 당시 韓國의 知識人들은 帝國主義 列強들의 弱肉強食하는 현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므로 進化論에 크게 共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適者生存이니 生存競爭이니 天擇物競이니 하는 用語는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많이 使用되던 말이였다. 이런 용어들은 西友學會 月報에서도 발견된다.

凡物이 孤하면 危하고 群하면 強하며 合하면 成하고 離하면 敗함은 固然之理라 矧今世界에 生存競爭은 天演이오 優勝劣敗는 公例라... (下略)<sup>(11)</sup>

(9) 拙著 改訂版 韓國開化史研究, 一潮閣, 1974年, pp. 236—237.

(10) 1卷 43號, 光武 2年(1898) 5月 28日 硯錄 參照.

(11) 西北學會月報 創刊號, 光武 10年(1906年) 7月 31日刊 所收 西友學會 趣旨文 參照.

이러한 進化論과 基督教은 思想的으로 보면 相反된 것이었지만 그 당시의 國家實情, 社會實情이 帝國主義 列強의 弱肉強食, 優勝劣敗라는 현상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有形의 自強—開化를 이룩하려면 經濟的인 것, 軍事的인 것도 많이 발전시켜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無形의 自強—開化를 이룩하려면 기독교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어떻게 그들은 기독교를 믿음으로서 나라가 개화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를 믿음으로서 새로운 世界와 새로운 自己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새로운 세계라 할 것 같으면 기왕의 전통적인 양반사회와 다른 것이었다. 양반사회란 儒教倫理가 支配하는 社會, 忠孝를 基礎로 하고 君子와 小人의 規範이 지배하는 社會였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萬民이 平等하다는 倫理가 지배하는 사회였다. 身分의 區別이나 社會的인 差別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같다」는 倫理였다. 各 個人은 모두 人格的인 存在로서 尊敬받아야 한다는 思想이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關西地方은 兩班이 없었다. 다른 말로 表現하면 上下의 區別이 엄격하지 않는 社會였다. 그래서 이 地方에서는 基督教의 四民 平等의 倫理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自然히 그들은 양반정치를 排擊하게 되고 市民的인 하나의 自由를 구하게 되었다. 이것은 近代市民社會를 建設하는데 있어 不可缺의 倫理였다. 그러기 때문에 近代市民社會를 建設하기 爲한 獨立協會의 活動이 展開되자 다른 어느 地方의 사람들보다도 더 이 地方 사람들은 積極的으로 呼應하고 支持하였던 것이다.

또 한편으로 기독교를 통하여 새로운 自己를 發見했다는 것은 하느님과 人格的인 關係를 確立함과 동시에 새로운 內面的인 倫理를 찾았다고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새로운 行動倫理, 새로운 生活樣式을 갖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 선교사들에 의한 淸教徒精神(Puritanism)의 影響도 있었지만, 그들은 偶像을 排擊하고 聖書에 대한 絶對的인 信仰을 갖게 되고 열렬한 傳道心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安息日을 철저히 지키기도 하였다. 한편 몸가짐을 엄격히 했고 節制와 勤勉을 존중하고 禁酒·禁煙·一夫一妻制를 준수하였다. 이런 行動은 기독교의 하나의 敎理처럼 간주하여 철저히 지켰던 것이다. 신자가 된 사람들은 이러한 새로운 生活樣式을 擇하게 되자 놀랄만큼 새로운 하나의 人間이 되었다<sup>12)</sup>. 당시에는 信仰復興會가 대단히 유행하였고, 이 신앙 부흥회를 통하여 自己의 信仰을 더욱 內面化시킬 수 있었다.

더우기 關西地方에서는 改新教를 받아들임으로서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의 이웃도 구제받아야 된다고 믿고 여러가지 운동, 이를테면 政治的·社會的·經濟的인 運動을 展開하였다. 初期教

(12) 日本에 있어서도 같은 實情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隅谷三喜男, 「近代日本の 形成과 그리스도敎」, 新敎出版社, 東京, 1961年, pp. 15—22 參照.

會의 特色은 倫理的인 동시에 政治的이었다. 기독교에서 발견한 새로운 倫理는 韓國을 政治的으로 새롭게 한다고 믿었다. 그러기 때문에 1907년 梁起鐸, 安昌浩, 李昇薰 등 기독교 신자가 중심이 되어 秘密政治團體를 組織할때 그 이름을 國民을 새롭게 한다는 뜻에서 「新民會」라고 붙였던 것이다. 新民會는 合邦과 더불어 日帝의 기독교 탄압으로 나타난 105人事件으로 解散되고 만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改新教 信者들은 獨立協會 活動을 비롯하여 政治的으로 많은 活動을 하였던 것이다.

社會的인 活動도 대단하였다. 惡習 打破에도 앞장 섰지만 教育運動에도 投身하였다. [表 2]에서 본 바와 같이 기독교 단체에서는 수많은 私立學校를 세워서 운영하였던 것이다. 教會도 信者들 自身の 힘으로 세웠지만 그 운영도 自力으로 하였던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헐버트의 韓國史(The History of Korea)의 기사 중에서 西北地方은 기독교 신자의 數가 많아 서 注目되는 것이 아니고 全的으로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음이 문제가 된다고 한 것도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 할 것이다 .

1906년 10월에 발족한 西友學會는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 만들어진 學會였다. 그해 11월에는 咸鏡道人들이 漢北學會를 만들었고, 이 學會는 平安道人들의 西友學會와 통합하여 1908년에 西北學會로 發展하였다. 이 西北學會의 開會式에 參席한 바 있던 雲養 金允植은 그의 日記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校洞 西北學會 開會式에 參席하였다. 처음에 平安道 사람중 서울에 있는 者들이 西友學會를 설립하였고, 咸鏡道 사람중 서울에 있는 者들도 또한 漢北學會를 설립한 바 있었다. 이번에 兩쪽 地方사람들이 學會를 統合하여 西北學會라 하였다. 會長은 鄭雲復, 總裁는 李道宰, 總務는 金達河였고, 西北사람들이 구름처럼 이 모임에 모였다. 그들은 차례로 연설을 하였는데 規模는 整肅하고 이야기는 淸亮하였다. 맨나중에 安昌浩가 연설하였는데 數千마디의 말을 계속하였다. 그의 말은 흥분과 感激으로 뒤 섞여 있었다. 이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感動되어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는 미국에 遊學을 한지 5年이 되었고 지금 나이는 30세라고 한다. 西北地方의 구름은 열리고 風氣는 날로 進步되어 三南地方이 깊이 잠들고 있는 狀態와는 다르니 甚히 훌륭하고 感歎할만 하다.<sup>13)</sup>

都是 1900年代의 關西地方 사람들은 대단히 活氣에 넘쳐있었다. 이 사실은 위의 史料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당시 우리 나라의 일반적 분위기는 西北地方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 비해 남쪽 지방은 하루속히 분발해서 서북 지방을 따라가야 한다고 누구나가 말할 정도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大韓 每日申報에서는 「南人學問 遜於西北」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지적하여 경고하고 있다.

(上略) 第今韓之局勢를 概論컨대 舊態日祛하고 新氣漸來하야 即 人文變遷하는 一大機會인즉 國內人士에 他日 榮辱得失이 惟其學問上 勉勵與否에 在인바……(中略) 至若西北 人民하야는 其風性質이 從

(13) 續陰晴史(下) 卷12, 隆熙 2年(1908年) 1月 10日條.

來堅忍勤悍하여 可與有爲기로 或外國에 遊學하여 勤苦를 不憚하며 或學校를 廣設하여 教育에 熱心함이 蔚然衆民之先覺이오 全國之巨擘이라 將來 人材之成就와 文明之開進을 有不可量할지니 此或地理人事가 有盛衰而然歟아 吉土之鄉에 和氣自溪하며 需世之材가 終必發達은 理勢之固然인 즉 吾濟는 一言以蔽之曰 不過數十年하야 韓國摺紳之功業과 學問之宗匠이 不在於南土하고 必出於西北이라 하노라<sup>(14)</sup>.

西北學會의 뒤를 이어 各地方의 學會가 세워졌다. 이를테면 皇城中央學會, 畿湖興學會, 湖南學會, 關東學會 등이 그것이다. 이 學會들은 국민을 啓蒙하는 雜誌도 刊行하였지만 私立學校를 세워 運營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社會운동도 活發하였지만 한편으로는 經濟운동도 대단하였다. 關西地方은 일찍부터 商業이 발달했음은 이미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開港(門戶開放)이후 外來商品의 浸透로 타격을 받았다. 특히 綿織物 交易은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關西地方에서는 새로운 企業을 모색하였다. 隆熙 3년(1909年) 1월에 刊行된 西北學會月報에는 論說欄에 「物質改良論」을 게재하여 앞으로는 새로운 產業에 착수해야 된다는 主張을 提唱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한 새 企業의 모색과 關聯이 있었다. 실제로 그무렵 농촌에서는 精米業이라던가 果樹業과 같은 새로운 기업이 나타났다. 都市에서는 製紙會社나 陶磁器會社를 經營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앞에서 說明한 바 있는 新民會에서도 平壤 馬山洞에 陶磁器會社를 설립하여 經營하였다. 특히 平壤에서는 메리야스 公業이 일어났다. 綿絲를 이용하여 工程이 단순한 양말 公業으로부터 시작하여 장갑, 다오루, 도꾸리셔츠, 세타 등의 다양한 商品을 생산하였다. 이것은 전적으로 韓國人 資本으로 經營되었던 것이다<sup>(15)</sup>. 고무 公業도 마찬가지였다. 이것들은 民族企業으로 성공한 두드러진 例에 속하고 있었다.

그런데 1928년 平壤 商業會議所에서 간행한 「평양 양말 公業 沿革調查書」에 의하면 이 평양의 메리야스 公業은 1905년 金基浩가 일본에서 기계를 사들여 吳胤善宅에서 시작했다고 되어 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巨額의 資本을 들여 工場을 설치하고 평양 양말공장의 발전을 이룩한 사람은 朴致錄이었다.

吳胤善이나 朴致錄은 平壤의 有名한 長老였다. 이들은 公共事業에도 獻身하여 活動을 하였다. 吳胤善은 崇仁商業學校, 仁貞圖書館의 運營에 盡力한 바 있었다. 朴致錄도 三一運動때 많은 活躍을 했던 사람이다. 그들은 근면하게 일하고 禁慾的인 合理主義를 지켜서 事業을 運營하였던 것이다. 웨버(Max Weber)가 주장하는 이른바 <프로테스탄티즘의 倫理와 資本主義의 精神>이란 것은 우리 나라 關西地方에서도 그 例를 찾아볼 수 있다 할 것이다.

(14) 第128號, 光武 10年(1906) 1月 19日 雜報欄 所收.

(15) 平壤의 메리야스工業의 發達에 대해서는 梶村秀樹, 「日帝時代(前半期)平壤 메리야스工業의 展開過程」, 朝鮮史研究 論文集, 3, 1967年, pp. 114~140 參照.

결국 開化期 關西地方은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으로 活氣를 띠고 있었고, 이것은 특히 改新教의 영향하에 나타났던 것이었다. 끝으로 부연할 것은 이같은 활기는 日帝下에 들어가서도 식지 않고 抗日獨立運動의 힘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3.1운동 당시 改新教徒들의 활동은 그 두드러진 例라 할것이다.